일 주 문

설정 스님, 원담 스님 다례재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은 3월 15일 제3대 방장 원담 스님 3주기 추모다례와 부도 제막식을 봉행했다.

도법 스님 평화문화재 법문
도법 스님은 3월 14일 제주도 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평화문화제에 참석해 생명평화의 섬을 만들자는 법문을 했다.

천태종 관음정진 백만독불사 회향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3월 19일 단양 구인사 광명전에서 상월원각대조사 탄신 100주년 기념 일심청정 관음정진 백만독 회향대법회를 봉행했다.

쌍계사 정기 보살계 대법회
하동 쌍계사 주지 성조 스님은 4월 9일 쌍계사 금강계단에서 정기보살계 대법회와 대장경정대불사 및 육조봉찬회 총회를 봉행한다.

월정사 단기출가 입학고불식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4월 15일 월정사 대법륜전에서 단기출가 입학고불식을 봉행한다.

조계사 지구촌불끄기 캠페인
서울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은 3월 26일 조계사 소등행사를 시작으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지구촌불끄기 캠페인에 들어간다.

덕문 스님 강화 보문사 주지 임명
덕문 스님은 3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강화 보문사 주지로 임명됐다.

능인선원 춘계 3000배 철야정진
서울 능인선원 선원장 지광 스님은 4월 9일 능인선원 대웅전에서 춘계 삼천배 철야정진기도를 입재한다.

도각 스님, 태고종 종정예경실장
태고종 도각 스님은 3월 24일 태고총림 순천 선암사에서 태고종 종정예경실장으로 임명됐다.

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장
배기동 한양대 교수는 3월 21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회 2011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제6대 위원장에 추대됐다.

"불교여성학 새 분야 개척할 터"

불교여성연구소 초대소장 서울대 철학과 조 은 수 교수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이를 수행과 포교현장에서 접목하는 방식은 한국불교의 발전과 직결돼 있습니다. 여성 불자들의 종교적 지위, 깨달음의 가능성에 대해 더욱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해석이 선행돼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들의 지도력을 발휘하고 능력을 더 고양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애주) 불교여성연구소 소장 조은수(54 · 사진) 서울대 철학과 교수가 불교여성학의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한 강좌를 열어 눈길을 끈다. 지난 1월 불교여성연구소 개설 기념으로 마련된 강좌는 불교에서의 여성 영성 · 수행의 중요성 및 불교여성학에 대한 내용들이다.

강좌는 △김혜숙 이화여대 철학과 교수의 '철학 여성주의의 기본개념인 여성성과 권력의 문제' △장필화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의 '여성주의적 관점과 불교사상의 접목 가능성과 불교 내에서 여성 수행의 특수성과 보편성' △허라금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의 '여성 수행에 있어 생태 모델을 중심으로 한 윤리적 종교실천과 여성의 역할' △김성례 서강대 종교학과 교수의 '반(反) 여성적인 종교교리와 종교인 구 절반을 넘는 여성 수행자' △김정희 이화여대 교수의 '여성 영성 실현과 자아실현' △조은수 소장의 '불교여성학의 정립' 등으로 구성됐다. 강좌는 3월 25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2~4시 견지동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3층에서 진행된다.

조은수 소장은 "사찰 신도 절반 이상이 여성이지만 여성의 역할은 보조역할에 그치거나 수행의 주체가 여성인데 교리는 반(反) 여성적인 내용, 여성의 종교적 능력을 폄하하거나 여성 수행자가 여성으로 태어난 것을 비하하는 경우가 많다"며 "여성의 잠재력과 영성에 대한 그릇된 견해들에 대해서 교리적 측면에서의 여성상을 살펴보고 여성의 불교발전 기여에 대해서 새롭게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은수 소장은 여성불자 신행활동이 사회적 · 수행적 · 제도적인 측면의 장애를 극복할 때 불교의 활성화가 이뤄진다고 본다.

"부처님은 여성의 출가를 허락했습니다. 성별 · 지위 · 출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행위를 강조하며 사회 각 계층의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어느 종교보다 양성 평등적인 종교로 평가 받습니다. 불교계가 종교적 · 제도적 · 사회적 제반에 걸쳐 평등정책을 구축, 성 평등 의식을 고취시켜 여성불자들이 자신의 수행과 종교적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때 불교의 발전이 있습니다."

불교여성연구소는 최근 조계종에 불교계 내부에 존재하는 성차별적 의식이나 관행 극복을 위한 5가지 정책 조건 및 지원책을 제시했다. △재가 신도를 위해서는 사찰 내 프로그램에, 스님들을 위해서는 강원 교육에 양성평등과 포괄적인 젠더 교육 편입 △종단 내 의사결정 시 여성 참여기회 제고 및 비구니의 리더십 보장 △양성평등 문제 및 여성정책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기관 신설 △결혼 · 출산 · 육아 · 자녀교육 · 자기개발 · 사회참여 · 제2인생 설계 · 평생교육 · 죽음교육 등 인생 주기와 연령대에 따른 다양한 전문기관 설립 △불교의 사회화를 위한 실용교육 및 지도자로서 갖춰야할 교양과 자질, 조직 운영과 소통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스킬 등 사회화를 위한 기술의 정책 지원 등이다.

조 소장은 "5가지 제안을 통해 불자들이 성차별적인 의식을 극복하고 자신의 종교적 가능성과 개인적 · 사회적 성취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을 확립할 때 현대사회에 적합한 건전하고 건강한 의식을 가진 수행자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성 불자들이 각계에서 리더로 활약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조 소장은 한마음선원 원장 대행 스님을 가장 존경하는 스님으로 뽑았다.

"2003년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을 처음 뵙고 스님의 법력과 리더십에 존경을 금치 못했어요. 2004년에는 국제학술회의도 지원해주셨죠. 이번에 미국 SUNY 출판부에서 당시 국제학술대회의 결과물을 책으로 만들었는데, 서문에 대행 스님에 대한 감사의 뜻을 마음으로 담았습니다."

이상언 기자

서울대 약학과 졸업
서울대 총불교학생회
서울대 대학원 철학과 석사학위 박사과정 수료
미국 버클리 대학 박사학위 취득, 불교철학 전공
미국 미시간대 아시아 언어문화학과 조교수
서울대 규장각 국제한국학센터 초대소장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지역 세계기록문화유산위원회 출판소위원장 의장

영문 한국불교 사전 · 역사편람 낸다

김 종 욱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장

"한국학 속 불교를 바라보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입니다."

김 종 욱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사진)가 불교문화연구원 원장으로 3월 15일 임명됐다.

김종욱 원장은 24일 불교문화연구원 구원원에서 가진 인터뷰를 통해 "지금까지 대부분의 대학 연구기관에서 유교 중심의 한국학만을 연구해왔다"며 "종교가 아니라 문화 역사적 측면에서 불교의 위상을 세워가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더는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지 않겠다"며 불교문화연구원의 사업을 보다 공격적이고 능동적으로 연구 사업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이제까지는 정부가 내놓은 기획안에 손을 들고 뽑아 달라고 하는 식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먼저 기획안을 만들어 찾아가겠다는 것.

김종욱 원장은 한국불교전서 영역화 기반 구축의 첫 걸음으로 제대로 된 영문(英文) 불교서적 출판을 꼽았다. "불문연은 영문 〈한국불교사전〉 · 〈한국불교역사편람〉을 출판할 예정이다." 사전은 약 1000 페이지정도 예상되며 사찰명, 인명, 교리개념 등이 수록되고 역사편람은 역사, 문화, 사상 등의 분야별로 나누어 시대 순으로 수록될 예정이다.

김종욱 원장은 학술연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재정 확충을 꼽으며 "한국불교 연구를 중심으로 많은 연구기금을 유치에 함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종욱 원장은 "원로 석학들이 맡던 중책을 젊은 중견 학자가 맡게 돼 송구스럽고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불문연은 5월 28일 한국불교문화역사기념관에서 '한국불교,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불교문화연구원 개관 50주년이 되는 2012년 3월에는 미국유수대학의 한국학연구소 인재들을 초청해 '한국학으로서 불교학'을 주제로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동국대 명예교수 인환 스님(경국사 회주)은 동국대 불교학술원장 겸 동국대역경원장으로 임명됐다.

천진영 기자

인재불사 위한 잇단 쾌척

동국대 명예교수 법 산 스님

3월 2월 정년퇴임한 동국대 명예교수 법산 스님이 동국대와 중앙승가대에 승가교육을 위한 발전기금을 잇따라 쾌척했다.

법산 스님은 3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 자승 스님에게 중앙승가대 발전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법산 스님은 "교육이사로 선임돼 학교운영에 미력하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발전기금을 마련했다"며 "조계종 승가교육에 많은 스님들이 관심과 지원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산 스님은 이에 앞서 3월 17일 동국대에 제2건학기금으로 1000만원을 전달했다.

스님은 "1986년 선학과 교수로 임용된 이후 25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받은 즐거움은 헤아릴 수 없다"며 "학교의 제2건학에 동참할 수 있게 돼 기쁘며, 많은 분들이 동국대학교의 제2건학에 함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승가학원 이사장 부임 이후 발전기금을 출현한 이사는 법산 스님이 처음"이라며 "한국불교의 미래를 결정짓는 대작불사인 승가교육에 법산 스님의 보시가 선례가 돼 많은 이사들이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장기기증 생명나눔, 더불어 사는 기쁨입니다.

장기기증은 자신의 소중한 신체의 일부를
아무런 조건없이 나누어주어
새생명을 선물하는 **생명나눔**입니다.
따뜻한 사랑의 작은 나눔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길을 당신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 **뇌사시 기증 :** 심장, 신장, 간장, 췌장, 폐장, 소장, 각막, 췌도, 인체조직 등
◆ **생존시 기증 :** 조혈모세포, 신장, 간장, 혈액
◆ **사 후 기 증 :** 각막, 인체조직, 시신

※ 장기기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장기기증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전화주세요.

문 의 : 02)734-8050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22번지 대성스카이렉스 101동 305호

북한산(삼각산) 적멸보궁 노적사 (전통사찰 201호)

노적사 청년회 재창립 발기 및 회원 모집

청년 불자를 키워야 불교가 발전합니다.
불교의 중흥을 위한 제일 첫 걸음은 인재불사입니다.
젊은 불자들의 소통과 신행을 위해 노적사 청년회를 재 창립 합니다.
많은 청년 불자님들의 동참을 바라오며,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을 약속 드립니다.

노적사 주지 종후 합장

문의 : 주지실 02)353-4924 / 대표 02)353-5016 / 팩스 02)386-4198

대한불교조계종 노 적 사
경기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331번지